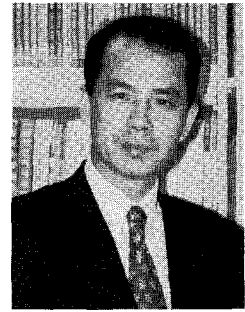


결의를 새로이 하자



김재록

(주)천연키토산

을 여름 장마가 채 오기도 전에 연일 마스크에서 두드러대는 가슴 찢렁 내려 앉은 뉴스, 뉴스들……
“한탄강 폐수방류 10명 구속!” “강원도 조양강도 물고기 떼죽음”
“비오는 밤 틈타 또 폐수방류” “서울 일부지역 오존 경보!”
“낙동강에서 또 물고기 떼죽음” “서울형 스모그 날로 악화일로!”

너무나도 귀에 익은 뉴스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면 환경 둔감중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머언 남의 나라 얘기인양 이미 한쪽귀로 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물자의 홍수시대에 파묻혀 둔감해진 우리국민 모두의 자화상과도 같은 얘기들이다.

지난 6월 17일 서울에는 약 105mm의 큰 비가 내렸다. 본격적인 장마의 서곡치곤 굉장히 많이 내린 비의 양이었다. 그래서인지 19일 각 일간지들의 조간 첫면에는 제각각 비에 씻겼음인지 깨끗하게 개인 서울의 하늘을 찍어 화제로 삼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19일 낮 한나절도 채 지나지 않은 서울의 하늘은 비내리기 전의 서울형 스모그가 가득 끼인 하늘로 변해 버렸다.

누구를 탓해야 하며,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나와 내가족이 매일 매일 버리는 음식물찌꺼기와 가정의 하수·오수가 어떠한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남들에게 해가 되건말건, 서울의 하늘이 오염 되건말건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언론의 환경오염 보도에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흥분을 사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서로의 흠허물을 논할 자격(적어도 환경문제에 대해선)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대오각성하지 않는다면 이 환경난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정부, 지자체, 언론, 환경단체, 기업인, 일선 환경실무자 나아가 국민 모두는 환경이라는 인류 최대 숙제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정화에 제일 먼저 내가 솔선하겠다는 각오로 새로이 나서야 한다.

우리들은 환경관리에 관한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다. 환경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기업에서의 양심적이고도 적극적인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기업의 모든 사원들로 하여금 작게는 식사후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합성세제의 사용도 자제시키는 등 작은 환경보호활동부터 생활화 한다면 환경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뿐 아니라 이번 오염사건으로 얼룩진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얼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이 글을 빌어 언론에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오염현황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묵묵히 말없는 가운데 열악하고 구석진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환경관리인의 사례들도 많이 발굴, 보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경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달라는 것이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우리 사회 저변에 꿈틀대는 정의가 이 사회를 움직여 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의하여 마음 놓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보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환경인으로 다시 태어나자.